

미술관 전시공간 형태의 변화에 따른 관람자의 작품 인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ublic's Perception on Accordance with Change of Exhibition Space in an Art museum

이정아* / Lee, Jung-A
문정목** / Moon, Jung-Mook

Abstra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xhibition space and art work in museum, new paradigm has being presented from 1990's as a turning point. Even if the formal exhibition space that emphasizes itself as a background has currently being continued, the informal exhibition space is coming to the new art museums, especially after 1990's.

This study is to understand how the advent of informal form of space in an exhibition of art museum makes a new paradigm in the relation between the exhibition space and art work in conjunction with public's perception after 1990's that is identified to the time of Pluralism.

To do this, the study raised a question on how the public perceive the relation between space and art work through photographs that contain the information on relation between space and art work. And the questionnaire performed through the curators who are working for art museum, students who studies fine art, students who studies design and public who comes to art museum.

After survey through this questionnaire, it is made clear that the informal form of space simply has played a role of background since the beginning of art museum. In other hands, the informal form of space that is mainly presented after 1990's begins to interrupt the public's perception of art work, changing it's meaning through a spatiality.

키워드 : 미술관, 전시공간, 공간형태, 작품, 인지

Keywords : Art Museum, Exhibition Space, Form, Art Work, Perception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근대 이후 보편주의가 도래했던 시기의 미술관 전시공간은 유클리드 기하학에 바탕을 둔 정형화된 형태로서 근대건축의 합리주의 및 기능주의의 성향을 표현하고 있다. 특히 이 시기의 미술관은 화이트큐브(white cube)¹⁾라는 장치로 대변되며, 전시공간에 있어서 순수한 형태 이외의 것은 철저히 배제²⁾시킴으로써 미술 작품의 개별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전시공간이 작품과의 관계성을 배제하는 장치로서 사회와의 어떠한 관계도 부정하며, 미학적, 초월적 기준만이 작용하는 공간으로³⁾

비공간(non-spatial)적인 배경으로의 역할을 의미한다.

1990년대 이후 다원적(Pluralism) 사회의 출현과 더불어 다양한 형식과 장르의 현대미술이 부각되기 시작하였고 이와 같은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미술관 전시공간의 수요도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미술관 전시공간의 형태 또한 다원적 사회에서 나타나는 개별성과 특수

1)브라이언 오도허티(Brian O'Doherty)는 한 폭의 그림 이상이 될 수 있는 어떤 이미지는 우리 마음속에 흰색의 이상적인 공간을 불러일으키는데, 이것이 20세기의 전형적인 이미지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화이트 큐브는 이상적인 상태, 즉 인간에 의해 침해되지 않는 순수한 예술의 제시를 위해 외관상 단독으로 인식되는 순수하고 절대적인 상태로 제시된다. Note on the Gallery Space(1976)

2)에머바커(Emma Barker), 전시의 연금술 미술관 디스플레이(Contemporary Cultures of Display), 아트북스, p.36

3)김혜인, 1980년대 이후 현대미술전시의 해체주의적 특성에 관한 연구, 동덕여대학원, 석론, 2004, p.44

* 정회원, 상명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원 석사과정

** 이사, 상명대학교 디자인대학 실내디자인학과, 조교수

성을 지닌 공간으로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근대 미술관과는 차별화된 형태가 출현하게 되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⁴⁾ 미술관의 전시공간과 작품 사이의 관계는 1990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고 있으며, 그것은 비정형 전시공간의 출현 빈도가 1990년 이후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도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 비정형 전시공간의 출현이 기존의 정형 전시공간과 작품 사이의 관계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두 가지 형태의 전시공간을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연구 결과는 관람객이 작품 인지 시 단지 작품만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으며, 작품 주변의 상황과 더불어 작품을 이해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작품을 전시하는 전시공간의 중요성이라는 의미를 제시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대상

본 연구는 1990년 이후⁵⁾ 건립된 유럽⁶⁾의 미술관 중에서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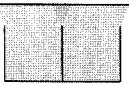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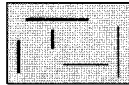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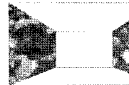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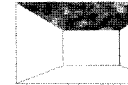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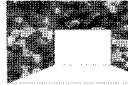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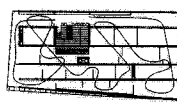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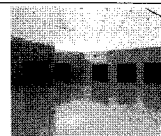




대미술⁷⁾을 전시하는 6개의 미술관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선정 근거는 첫째,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정형전시공간과 비정형 전시공간의 비교를 위해 분석 기준을 크게 정형성 분석에 따라 정형전시공간과 비정형전시공간으로 대분류하였고, 둘째, 각각의 전시공간을 3개의 유형으로 다시 구분함으로써 최종적으로 6개 유형의 공간으로 분류하였다.

6개의 유형에 대한 분석 대상의 선정 기준으로서, 정형 전시공간의 유형은 연속형, 선택형, 개방형으로 구분하였다. 그 근거로서, 정형전시공간은 공간형태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관람객이 한 전시공간에서 작품을 감상하고 다른 공간으로 연속적 이동하는 특성이 있다. 또한 전시공간과 이동공간에 의해서 형성된 관람 공간 구성⁸⁾이며, 이것은 공간 경험의 시각적 연속성에 따른 것이므로 연속형, 선택형, 개방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비정형전시공간의 유형별 선정 기준으로는 공간형태의 변화가 가장 큰 시각적 경험으로 인지되므로, 변화되는 요소로 벽

<표 1> 연구사례 분석

정형성 분석에 따라	정형전시공간			비정형전시공간		
	1-01	1-02	1-03	2-01	2-02	2-03
미술관명	Museum Het Valkhof	Kunsthau, Bregenz	Hamburger Kunsthalle	Museum für Moderne kunst Frankfurt am main	The Guggenheim Museum, Bilbao	Kunsthau, Graz
개관년도	1999	1997	1996	1991	1997	2002
위치	Netherlands Nijmegen	Austria Bregenz	Germany Hamburg	Germany Frankfurt	Spain Bilbao	Austria Graz
유형별	 선택형	 개방형	 연속형	 벽의 변형	 천장의 변형	 벽+천장의 변형
평면도						
전시공간 image						
전시공간 특징	바닥, 벽, 천장의 구분이 명확하며, 길게 뻗은 천장은 공간의 시각적 연결을 한다. 개구부의 위치가 불규칙하다.	바닥, 벽, 천장의 구분이 명확한 박스형의 Free-plan이다. 돌출된 하나의 벽으로 공간의 변화를 시도한다.	바닥, 벽, 천장의 구분이 명확한 박스형의 기본 전시공간을 보여주며, 독립된 전시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개구부를 향하여 벽이 모여드는 삼각형 평면을 한 전시공간으로 상부 벽은 꺾여 있으며, 천장은 아치형으로 넓은 공간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천장으로 연결된 유기적 형태의 구조물은 공간을 역동적이고 육중하게 한다.	삼각형 모듈이 벽과 천장을 형성하며 경계를 모호하게 한다. 상부의 육각형대는 공간을 더욱 복잡하게 보이게 한다.

4)문정목, 미술관 전시공간 구조의 시대적 의미 변화에 관한 연구, 2004, 박문, p.3

5)박정태·김용승, 최근 미술관 구성의 다양성 수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01.12에서 다양성이 정착되어 가는 시기로 1990년 이후를 지적하였으나, 이것은 문정목의 미술관 전시공간 구조의 시대적 의미변화에 관한 연구(2004, 박문)에서 수행된 공간구문론(space syntax)에서 1990년을 전후로 하여 확연히 구분되고 있다.

6)유럽은 미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과거에서부터 최근 다원적 사회까지

일련의 사회적 이슈의 중심에 있으며, 이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였다.

7)본 연구에서 논하는 현대미술이란 제2차 세계대전 후 20세기의 미술을 의미한다. 20세기 전반에 일련의 전위적인 미술운동인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추상미술운동, 바우하우스 운동 등과 함께 싹텄으며,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다양한 주제들을 새로운 재료와 기법을 사용하여 작가의 생각을 표현하는 미술이다.

8)관람객 움직임과 관련된 모든 공간을 전시공간, 전시공간과 이동공간 사이의 상호관계, 전체 공간 등 3단계의 유형화 과정을 통해 제시하였

의 변형, 천장의 변형 그리고 벽+천장의 변형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벽의 변형은 벽을 경사지게 하거나 곡면 벽으로 처리하는 경우, 벽면의 개구부나 창 의 변형을 활용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로 인해 정형적 육면체 형태에서 벗어나는 특징을 보여준다. 천장의 변형으로는 천장을 경사지게 하거나 곡선지게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 높이차를 이용하는 경우, 어느 한 부분을 보이도록 처리하여 변화를 주는 경우를 볼 수 있다⁹⁾. 벽+천장의 변형은 이러한 벽과 천장의 변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 미술관 전시공간 유형별 대상 선정 기준

대분류	분류기준	소분류	공간형태	내용
정형 전시공간	시각적 연속성에 따른 공간경험	연속형		복도나 그 유사한 공간이 독립된 전시공간과 평행하게 인접하여 언제든지 자유롭게 전시공간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공간형태
		선택형		Freeplan으로 내부가 빈 중립적인 공간으로 시각적 다양한 공간경험이 가능한 공간형태
		개방형		전시공간과 전시공간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공간형태
비정형 전시공간	공간 형태의 변화에 따른 공간경험	벽의 변형		공간 형태의 변화로 인하여 시각적 경험이 크게 작용하므로 공간의 변형을 가장 많이 표현 할 수 있는 공간 구성 요소를 선정
		천장의 변형		
		벽+천장의 변형		

미술관 전시공간을 정형공간과 비정형공간으로 분류한 기준으로 전시공간의 정형 및 비정형 분석 결과에 따르면¹⁰⁾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Museum für Moderne kunst Frankfurt am main(1991), The Guggenheim Museum Bilbao(1997), Kunsthaus Graz(2002)에서 비정형 전시공간을 보유하고 있음이 발견되었으며, Hamburger Kunsthalle(1996) Museum HetValk hof(1999), Kunsthaus, Bregenz(1997)는 정형공간으로 파악된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다.

각 미술관에서 유형별 전시공간의 특징이 부각되는 공간을 선정하여 그 공간을 촬영한 사진¹¹⁾에서의 전시공간과 작품의 인지를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다. 1차적 기준으로 개실형과 개방형 2차적 기준으로 자유평면형, 선형, 연속적 개실형, 선택적 개실형, 복합형 3차적 기준으로는 중심공간 수용으로 하였다. 조은실·유재엽·최윤경, 박물관 관람공간구성의 유형별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00.06, p.101

9)장훈익, 현대건축에 있어서 탈정형적 공간구성의 다의적 표현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대학원 박론, 2004, pp.27-28

10)문정목, 미술관 전시공간 구조의 시대적 의미 변화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대학원 박론, 2004

11)미술관 전시공간에 있어 대표적 공간형태의 특징이 부각되는 것으로 각 미술관의 홈페이지와 미술관 관련 서적을 통해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논하는 현대미술은 연구사례로 선정된 미술관의 전시 작품의 장르로 2차 대전 이후 나타난 20세기 이후의 미술로서 현대미술 이전의 미술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나, 현대미술은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 묘사와 더불어 작가의 사상 등을 미술로서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현대미술의 성격이 연구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1.3. 연구의 방법

오늘날 미술관 전시공간에서의 작품의 배치에 따른 분석과 같은 전통적인 미술관에서 수행되는 것은 최소화되었고 공간적 경험 속의 관람이 중요하게 되었다.¹²⁾ 직접적인 공간 경험을 하는 경우 관람객은 공간의 형태와 색감, 질감을 동시에 인지할 수 있으며, 사진이미지와 같은 간접적 공간경험도 형태, 색감, 질감을 통해 공간을 인지 할 수 있다.

<표 3> 공간경험의 방법

	직접적 공간경험		간접적 공간경험	
	실제 공간	사진이미지	라인드로잉	
형태 색감 질감		형태 색감 질감 	형태 	

라인드로잉 작도는 공간 형태를 유추하기 위한 것으로 전시공간의 사진으로부터 공간의 인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바닥, 벽, 천장의 형태를 결정하는 선을 추출하여 작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 형태와 작품의 관계에 대한 관람자의 인식을 그 주제로 하고 있기에 라인드로잉 작도를 그 연구 방법으로 하였다.

<표 4> 연구자료 추출방법

라인드로잉	3차원 작품	연구자료
	 알베르토 자코메티 (Alberto Giacometti) Man walking I(1960) Bronze, 180.5×23.9×97cm	

작가들의 작품에 나타나는 특징으로 조각품은 전시공간 그 자체에서 분명히 파악¹³⁾되기 때문에 작도한 이미지에 3차원 작품¹⁴⁾인 알베르토 자코메티(Alberto Giacometti)의 Man Walking

12)Serota, N, 하계훈 역, 큐레이터의 딜레마, 조형교육, 2000, p.29

13)위의 책, p.63

14)연구에 있어 색감과 질감은 제외되므로 형태가 있는 3차원의 작품을 선정하였다 또한 2차원 평면 작품은 주로 벽에 배치되므로 전시공간과

I를 선정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배치하였다. 자코메티의 작품은 추상적 형식의 사람형태로 설문대상자에게 쉽게 인식될 수 있고 흑백 라인드로잉의 성격상 김정색의 오브제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이유로 선정되었다.

<표 5> 설문대상자 선정 이유

설문대상	인원	대상선정이유 - 전시공간 인지에 따라
미술관 관련 종사자	20명	공간에 배치된 작품을 중심으로 인지
순수미술 전공 학생	20명	작품을 중심으로 인지
실내디자인 전공 학생	20명	공간을 중심으로 인지
비전공자	20명	관람객의 입장에서 작품을 중심으로 인지

전시공간의 형태와 작품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미술관 관련 종사자(큐레이터), 순수미술전공 학생, 실내디자인전공 학생, 비전공자 각각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설문문에 제공되는 화면의 크기 및 가로세로 비율과 작품이 전체 화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설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를 동일한 조건하에 설문을 실시하였다.

<표 6> 설문의 목적과 내용

	설문의 목적	설문 내용
설문 1. 연구 사례별 조사	공간과 작품의 주목성	공간보다 작품이 먼저 주목된다.
	공간이 작품에 미치는 영향력	공간을 형성하는 선으로 인하여 작품 감상에 방해 받는가?
	공간과 작품의 연결성	공간과 작품은 서로 어울린다.
	공간에서의 주목성	공간인식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설문 2. 작품의 위치 변화에 따른 조사	공간구성요소의 인식여부	공간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것은?
	공간이 작품에 미치는 영향력	공간이 작품 감상에 방해를 주고 있다.
	공간에서의 주목성	어떤 요소가 작품 감상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가?
	공간과 작품의 연결성	공간과 작품이 서로 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것은?

2. 전시공간에 있어 공간형태의 특징

2.1. 정형 공간과 비정형 공간의 형태적 특성과 요소

건축 역사 이래로 기하학적 구성을 통하여 표현되는 정형공간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어 사람들에게 익숙하고 시각적 인지도가 낮은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다. 한편, 해체주의의 등장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정형 공간을 표현하는 작업의 틀은 점차 변화하여 비정형 공간형태가 출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정형공간은 새로운 공간적 경험을 제공하면서 공간의 인지를 높여주고 있다.

(1) 정형 공간의 형태적 특성과 요소

작품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가장 익숙한 형태인 사람의 형태를 현대미술로 해석한 알베르토 자코메티(Alberto Giacometti)의 Man Walking I(1960, Bronze 180.5x23.9x97cm)를 선정하였다.

보편적 사회의 합리주의와 기능주의의 영향을 받고 유클리드의 기하학에 바탕을 둔 정형(定形, formal) 형태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형태이다. 원과 직선을 기본으로 하는 초등기하학적 형태가 2차원의 평면과 3차원의 입체를 이루는 단일 기하학적 형태와 기하학적 형태들을 사용하여 구성된 복합 기하학적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정형 공간은 바닥, 벽, 천장 등의 공간구성요소들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공간 형태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가 가능하고, 공간 표현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 정형성은 일련의 기하학적 질서, 비례, 대칭 및 동질적 요소의 질서로 요약 될 수 있다.¹⁵⁾

- 기하학적 질서 : 수평과 수직의 직교좌표와 사각형을 구조하는 것으로 정적이고, 논리적이다. 기하학은 형태를 정확하게 묘사 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고 동일한 형태를 반복해서 그려낼 수 있는 능력을 제공¹⁶⁾하는 것으로 시각적으로 명확하다.

- 중심성(축의 대칭성) : 중심성에 있어 대칭은 공간과 형태구성에서의 균형을 결정짓는다. 대칭과 균형은 미적인 가치에 뿐만 아니라, 구조적·기술적 요구에 의해 충실히 지켜져 온 질서 체계이다.¹⁷⁾

- 비례 : 비례는 전체와 부분(요소)간의 수학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즉, 다른 요소들이나 어떤 정신적 규범 혹은 기준과 대비되는 크기를 뜻한다. 똑같은 반복이나 대칭과는 달리 기본형태의 축소와 확대를 통하여 일정한 질서의 변화를 갖게 하는 원리인 것이다.

(2) 비정형 공간의 형태적 특성과 요소

비정형(非定形, informal)은 정형에 대한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 자유곡선과 사선 그리고 정형적인 순수 기하학적인 형태 파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¹⁸⁾ 공간에서 비정형은 해체주의의 출현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형에 머물러 있던 건축이나 공간이 유기적 형태로 쉽게 표현되면서 기존 형식에 대해 틀을 깬 새로운 개념의 공간과 형태를 추구하며 비정형공간을 출현하고 있다.

- 중첩성 : 중첩의 요소에서 가장 기본은 축(선)으로 축의 중첩은 중첩성의 표현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면이나 공간의 중첩도 포함이 된다. 정형공간에서 보여지는 중첩은 단순 기하학형태의 상호관입으로 벽면을 처리하였으나, 비정형공간에서는 그리드나 여러 방향으로 흩어진 축의 중첩이나 상호관입된 공간의 중첩으로 인해 새로운 공간을 형성하며, 이러한 공간들은 운동감과 긴장감을 더해 준다.

15)김철규·천동운, 현대건축 공간구성의 비정형적 형태에 관한 연구, 한국 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41호, 2003.12, p.88

16)김홍기, 건축조형디자인론, 기문당, p.196

17)박효미, 현대건축 공간의 탈정형적 공간구성 표현에 관한 연구,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2006, 석론, p.44

18)김철규·천동운, 현대건축 공간구성의 비정형적 형태에 관한 연구, 한국 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41호, 2003, p.89

• 탈중심성(비대칭성) : 공간에 있어 중심성은 남아 있으나 대칭성은 사라지고 있는데, 이것은 더 이상 벽이 구조체로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시설 배치에서 있어 기하학적인 질서가 사라지고 자유로운 조합에 의해서도 비대칭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수직·수평적 구성을 거부하며 기존의 균형체계를 파괴하는 경우와 기본적인 기하학적 형태에 유기적인 형태를 첨가하거나 비틀어진 매스로 변화를 주는 등 이질적인 형태가 첨부됨으로 인해 동적인 느낌과 다양성을 부여한다.

• 형태의 왜곡 : 수직적으로 작용하는 중력에 대한 저항으로부터 벗어나 다양한 중력 작용을 통하여 수직, 수평에서 벗어난 각도로 인해 공간속 힘의 흐름을 왜곡시키거나 벽체를 비틀어 나타내면서 새로운 공간 형태와 경험을 제공한다. 왜곡된 원, 다양한 곡률의 곡선, 평행하지 않는 선 등이 독립 혹은 중첩하고 우연적으로 결합하여 나타나게 된다. 직교 좌표에서 벗어난 형태들은 머릿속에서 상상되고 감각에 의해 나타나는 형태를 표현하게 되므로 시각적으로 움직이는 듯한 인식을 주며 부유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 형태의 유희 : 기능주의를 비판하면서 소외되었던 형태의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체주의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중 하나로 궁극적 목적은 새로운 형태의 의미를 만들기 위함이며 형태의 조작, 조합으로 다양한 의미를 창출해 내려는 것이다. 형태와 의미의 불확정성은 형태의 변형, 조작, 뒤틀림 등의 형태의 유희로 나타나지만 특정한 목적 없이 행하여지기도 한다.

<표 7> 공간의 형태적 특성과 요소

	형태적 특성	요 소
정형 공간	기하학적 질서	수직, 수평의 직교좌표사용
	중심성	축의 대칭성, 균형
	비례	크기변형과정, 기본형의 축소와 확대
비정형 공간	중첩성	축(선)의 중첩, 면 또는 공간의 중첩
	탈중심성(비대칭성)	기하학적 질서 파괴, 이질적 형태
	형태의 왜곡	반중력적 작용, 비기하학적 형태
	형태의 유희	형태의 조작, 조합-새로운 의미 창출

2.2. 전시공간에 있어 공간형태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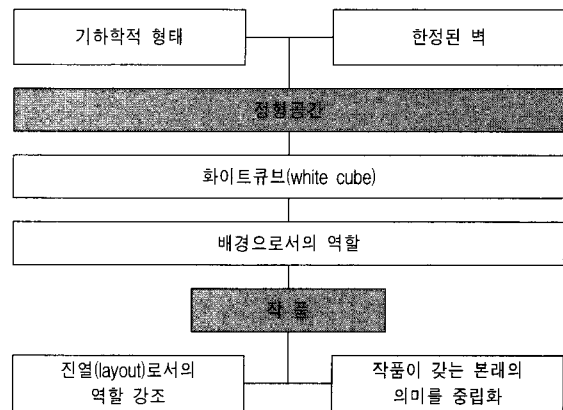
(1) 전시공간에 있어 정형 공간의 의미

근대사회 이후에 비교적 명확한 공간구획을 갖는 미술관이 유지되고 있다. 전시공간에 있어 정형공간은 기하학적 형태를 기초로 한 한정된 벽으로 둘러싸여 배경으로서의 역할을 하여 작품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관람객에게 최소한의 일정과 동선을 제공한다. 그 배경으로서의 역할은 작품으로 하여금 의미의 생산과는 무관한 진열(layout)로서의 역할만을 강조하고 있다.¹⁹⁾ 공간을 한정하는 벽이나 개구부의 위치가 명확

하여 전시공간 영역을 명확히 하고 작품의 성격을 규정짓는데 영향을 미친다.

모더니즘에서 '화이트큐브'는 이상적인 상태로 즉, 인간에 의해 침해되지 않는 순수한 예술의 체시를 위해 외관상 단독으로 인식되는 순수하고 절대적인 상태로 작품 감상에 있어 즉각적이고 집중된 관람을 하게 하여²⁰⁾ 작품이 갖는 본래의 의미를 중립화함으로써 작품의 형식적 특징을 부각시키는데 있다. 전시공간에 있어 정형공간은 공간구성요소의 단순함이 강조되어 서정적이며 전시를 위한 기능만이 강조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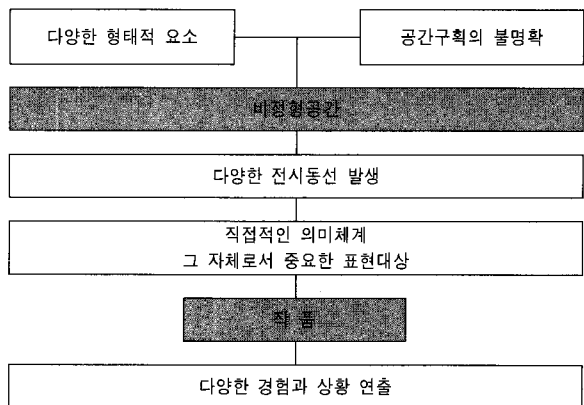
<표 8> 정형전시공간의 의미



(2) 전시공간에 있어 비정형 공간의 의미

전시공간에 있어 공간구획이 명확한 정도에 따라 전시의 구획 또한 명확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공간은 벽으로 인식되고 벽의 개구부로 인해 공간구획이 되는데 공간구획이 명확할수록 공간과 작품은 분리되어 인식되며, 불명확할수록 전시의 구획에 있어 전시공간과 작품, 전시공간과 전시공간, 작품과 작품간의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아 예상치 못한 다양한 경험과 상황을 연출하게 되는 것이다.

<표 9> 비정형전시공간의 의미



19) 문정목·임채진, 전시공간의 복잡성에 나타난 사회다원화 현상에 관한 연구, 한국박물관건축학회논문집, 제16호, p.11

20) 에머버커(Emma Barker), 전시의 연금술 미술관 디스플레이(Contemporary Cultures of Display), 아트북스, p.33

전시공간에 있어 비정형공간은 다양한 형태적 요소를 제공하면서 작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21) 공간경험에 있어서도 다양한 전시동선을 발생하게 하며, 관람자들은 서로 상이한 공간적 경험을 통해 다양한 시퀀스를 발생하게 된다. 또한 비정형 전시공간은 단순한 볼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중요한 표현 대상이 되었으며, 전시공간이라는 단순한 기능적 역할만이 아니라 직접적인 의미체계를 가지게 된다.

3. 전시공간의 형태에 따른 인지관계 분석

전시공간과 작품의 인지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은 총 80명에게 작도한 라인드로잉 이미지를 이용하여 공간과 작품의 상대적 주목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의 응답 반응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저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5항목에 대해 각각 '2, 1, 0, -1, -2'의 가중치를 대입하여 얻은 평균값이다. 질문에 대한 각 사례의 평균값을 그래프로 표기하여 6개의 사례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3.1. 연구 사례별 전시공간과 작품의 인지관계 분석

정형전시공간의 특징을 지닌 1-01, 1-02, 1-03은 관람객이 작품을 인지함에 있어 전시공간이 작품에 미치는 영향력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표10-그래프1, 표10-그래프2> 1-02에서 제시한 라인드로잉 이미지는 1-01, 1-03의 공간형태보다 더욱 단순화 된 육면체 형태로 응답자의 65%가 공간인식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벽을 선택22)하였으며, 바닥과 천장은 화면에서 많은 비율23)을 차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간(non-space)으로 인식하여 작품 감상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1-01, 1-03에서는 작품과 공간을 연결시켜 인지하고 있으나, 1-02에서는 그에 비해 작품과 공간이 분리되어 인지되고 있다.

비정형공간에서는 2-01<-4.0, 표10-그래프2>를 제외한 2-02, 2-03에서 전시공간이 작품 미치는 영향력 5.0과 7.6<표10-그래프2>으로 높으므로<최저 -12.8, 표10-그래프2>, 관람객이 작품 감상 시 공간 형태와 작품을 함께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개의 설문 항목에서 2-01은 비정형전시공간보다 정형전시공간에서 나타나는 수치와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미술관 전체 공간형태는 비정형공간이나 미술관 내부 전시공간은 정형전시공간으로 인식되어 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 미술관이 1991년에 완공되어 정형공간이 비정형공간으로 출현하는 과도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3은 공간이 작품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는 질문에서 제일 높은 수치<7.6, 표10-그래프2>를 기록하였다. 공간의 형태를 추출한 선의 간격이 좁은 복잡한24) 전시공간이 작품의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연구 사례별 전시공간과 작품의 인지관계

사례			설문결과
정형 전시공간	1-01	Museum Het Valkhof	<p>그래프1 공간보다 작품이 먼저 주목된다.</p>
	1-02	Kunsthau, Bregenz	<p>그래프2 공간을 형성하는 선으로 인하여 작품 감상에 방해로 주고 있다</p>
	1-03	Hamburger Kunsthalle	<p>그래프3 공간과 작품은 서로 어울린다.</p>
비정형 전시공간	2-01	Museum für Moderne kunst Frankfurt am main	<p>그래프1 공간보다 작품이 먼저 주목된다.</p>
	2-02	The Guggenheim Museum, Bilbao	<p>그래프2 공간을 형성하는 선으로 인하여 작품 감상에 방해로 주고 있다</p>
	2-03	Kunsthau, Graz	<p>그래프3 공간과 작품은 서로 어울린다.</p>

3.2. 정형·비정형전시공간에서 작품의 인지관계 분석

관람객의 관람행위 시 정형전시공간에 있어서는 작품을 중심으로 공간이 인지되므로 공간의 형태는 작품에 방해되지 않는 비공간배경(non-spatial background)으로서의 공간으로 인식되며, 공간은 작품을 수용하게 된다. 관람객의 작품 인지에 있어서, 공간의 영향력이 떨어지므로 관람객의 작품에 대한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

한편, <표11-그래프1>와 같이 작품의 주목성에 관한 설문에서 비정형전시공간에서는 공간형태의 변화 정도가 강하므로 작품뿐 아니라 공간에도 집중하게 된다. 비정형전시공간은 공간 형태가 작품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으며, 전시공간 그 자체로 의미를 부여하는 의미체계의 공간이다. 이는 전시공간과 작품이 동일시되어 전시공간과 작품의 의미 모두가 변할 수 있으므로 관람 행위 시 관람객에 따라 작품의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

21)문정목·임채진, 전시공간의 복잡성에 나타난 사회다원화 현상에 관한 연구, 한국박물관건축학회논문집, 제16호, p.11

22)1-02(kunsthau, Bregenz)의 공간인식에 가장 영향을 준 공간구성요소로 바닥-16.3%, 벽-65.0%, 천장-15.0%, 그 외 3.8%의 응답률을 보였다.

23)바닥, 벽, 천장의 화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36%, 19%, 45%이다.

24)제시된 라인드로잉 이미지에서 2-03(kunsthau, Graz)의 비정형이 강하게 나타나는 벽+천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82%이다. 반면, 같은 질문에서 가장 낮은 수치(-12.8, 표12-그래프2)를 기록한 1-02(kunsthau, Bregenz)의 정형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바닥, 천장의 이미지 비율은 36%, 45%이다.

<표 11> 정형전시공간과 비정형전시공간에서 작품의 인지 관계

사례			설문결과
정형 전시 공간	1-01	Museum Het Valkhof	그래프1 공간보다 작품이 먼저 주목된다.
	1-02	Kunsthau, Bregenz	
	1-03	Hamburger Kunsthalle	그래프2 공간을 형성하는 선으로 인하여 작품 감상에 방해를 주고 있다
비정형 전시 공간	2-01	Museum für Moderne Kunst Frankfurt am main	
	2-02	The Guggenheim Museum, Bilbao	그래프3 공간과 작품은 서로 어울린다.
	2-03	Kunsthau Graz	

<표 12> 설문대상자에 따른 전시공간과 작품의 인지관계

사례	정형전시공간			비정형전시공간		
	1-01	1-02	1-03	2-01	2-02	2-03
그래프1 공간보다 작품이 먼저 주목된다.						
그래프2 공간을 형성하는 선으로 인하여 작품 감상에 방해를 주고 있다.						
그래프3 공간과 작품은 서로 어울린다.						
미술관관련종사자						
순수미술전공학생						
실내디자인전공학생						
비전공자						

3.3. 설문대상자에 따른 전시공간과 작품의 인지 관계 분석

본 연구는 각 그룹에서 나타나는 전문성에 따라 미술관 관련 종사자는 공간과 작품의 배치관계에 따라 인지하며, 순수미술전공학생은 작품을 중심으로 인지하며, 실내디자인전공학생은 공간을 중심으로 인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각 그룹별로 수치의 정도만 다르게 나타날 뿐 같은 그래프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특정 분야에 속하여 관심정도가 다르다고 하지만, 전시공간에 있어 작품은 공간으로 인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관람 시 이러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표12-그래프2>의 미술관 관련 종사자는 정형전시공간에서도 작품 감상의 방해 정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의 수치가 다른 그룹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공간과 작품의 연결성을 알고자 한 <표12-그래프3>에서도 다른 3개 그룹의 수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미술관 관련 종사자들은 공간이 작품에 미치는 영향력은 정형전시공간에서도 일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 영향이라는 것은 공간이 배경으로서 역할을 하여 작품과 연결성을 높게 하는 것이다. 비정형전시공간에서는 공간이 작품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간과 작품의 연결성이 그다지 나쁘지 않다는 것은 공간과 작품을 인지함에 있어 공간의 한 면만이 아니라 모든 공간을 고려하여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작품의 위치에 따른 전시공간 인지관계 분석

4.1. 동일 전시공간에서 작품의 위치 변화에 따른 인지 관계 분석

동일한 미술관 전시공간에서 작품의 위치에 따른 공간과 작품과의 관계에 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먼저 미술관 전시공간에서 공간형태를 표현하는 선의 간격이 넓은 단순함이 강한 곳²⁵⁾에 작품을 배치하였고, 비교를 위해 공간의 형태를 나타내는 선의 간격이 좁은 복잡성이 강한 곳²⁶⁾에 작품을 배치하였다.

전시공간과 작품은 동일하나 작품이 배치되는 장소에 따라 관람객이 작품의 인지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정형전시공간에서 공간 형태를 나타내는 선의 간격이

25)'단순'이라 표기함.

26)'복잡'이라 표기함

넓은 단순함이 강한 곳에 작품이 위치했을 경우 공간이 작품에 영향력<-33.6, 표13-그래프2>을 미치지 않는 비공간배경(non-spatial background)의 역할을 하고 있다.

비정형전시공간에서 공간 형태를 추출한 선의 간격이 좁은 복잡성이 강한 곳에 작품이 위치하였을 경우 공간형태로 인하여 작품 감상에 미치는 영향력<21.4, 표13-그래프2>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람객이 작품 감상 시 공간이 미치는 영향력이 작을수록 공간과 작품은 서로 연결시켜 인지 할 수 있음<21.4, 표13-그래프3>을 알 수 있고, 작품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수록 작품을 인지함에 있어 관람객에 따라 다양한 반응<-29.2, 표13-그래프3>이 나타날 수 있다.

<표 13> 동일 전시공간에서 작품의 위치 변화에 따른 인지관계

사례	라인드로잉		실문결과
	단순	복잡	
정형 전시공간	1-01		그래프1 공간보다 작품이 먼저 주목된다.
	1-02		
	1-03		그래프2 공간을 형성하는 선으로 인하여 작품 감상에 방해가 주고 있다.
비정형 전시공간	2-01		그래프3 공간과 작품은 서로 어울린다.
	2-02		
	2-03		

4.2. 관람객과 작품의 거리 변화에 따른 인지관계 분석

제시된 라인드로잉 이미지는 '가'에서 '라'로 갈수록 관람객과 작품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전체 공간은 시야에서 벗어나며 공간구성요소의 형태적 특징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라'와 같이 관람객과 작품과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바닥과 천장이 차지하는 화면비율이 줄어들고 벽이 화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짐으로 인해 화면에서 공간 형태를 나타내는 선과 선의 간격이 넓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공간의 단순함이 증가되어 관람객과 작품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비공간 배경

<표 14> 관람객과 작품의 거리 변화에 따른 인지관계

사례	가	나	다	라	
정형 전시공간	1-01				
	1-02				
	1-03				
비정형 전시공간	2-01				
	2-02				
	2-03				
실문결과	그래프1 공간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것은? 				
	그래프2 공간을 형성하는 선으로 인하여 작품 감상에 방해가 주고 있다. 				
	그래프3 공간과 작품은 서로 어울린다. 				

(non-spatial background)으로 인지하게 되는 것이다.

비정형전시공간에 있어서도 그 특징을 나타내는 요소들이 화면 밖으로 밀려나고, 선들의 간격이 넓어지면서 단순한 공간으로 인식이 되고, 공간형태를 나타내는 선들은 패턴으로 인식되어 이 역시 배경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정형전시공간과 비정형전시공간에서 관람객과 작품과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공간 인식 정도가 낮아지며, 작품의 인식 정도는 높아짐으로 인해 전시공간이 작품과의 관계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떨어져 배경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형전시공간과 비정형 전시공간 모두의 그래프가 유사한 수치를 보여줌에 따라 알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1990년 이후 등장한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전시공간형태의 변화가 작품의 인지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작품을 전시하는 전시공간의 중요성에 대하여 그 영향력과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공간 형태의 변화에 주목한 3장에서는 정형전시공간에서는 작품을 공간으로 수용할 수 있는 비공간배경(non-spatial background)의 역할을 하며, 비정형 전시공간에서는 공간 구성요소들의 형태적 특징으로 인하여 공간과 작품의 주목 정도가 동일시 인지되며, 이는 공간 그 자체로서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는 의미체계의 공간이다. 각 그룹별 설문대상자들은 전문성에 따라 관심도가 다를 뿐, 전시공간에 있어 작품을 인지하는 것과는 무관함을 알 수 있다.

작품의 위치 변화에 주목한 4장에서는 동일 전시공간에서 단순, 혹은 복잡한 공간에서 인지되는 작품 또한 3장에서 나타난 결과처럼 단순한 공간에서 작품을 인지가 더 높으며, 복잡한 공간에서는 작품의 주목 정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나타내어 정형전시공간에서 비공간배경과 비정형전시공간에서의 의미체계의 공간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또한 관람객과 작품의 거리 변화에서는 그 거리가 가까울수록 화면에서 공간 형태를 나타내는 라인의 간격이 넓어 단순한 공간으로 보이면서 비공간배경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정형전시공간은 비공간배경의 역할을 하며 어떠한 것도 수용할 수 있는 전시공간으로 관람객이 이러한 정형전시공간에서 작품을 인지할 때 공간과 작품을 하나로 인식하여 감상하게 되고, 작품의 의미로 인해 공간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간형태의 복잡성으로 인해 비정형전시공간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의미체계의 공간이며, 이것은 관람객의 인지 정도에 따라 공간의 의미가 다르게 해석된다. 정형전시공간에서 공간이 작품을 수용한 것이라면, 비정형전시공간에서 공간과 작품은 동일시하여, 관람객 개개인마다 나타나는 작품의 다양한 의미와 공간의 다양한 의미가 결합되면서 더 많은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미술관 전시공간은 다양한 공간 형태를 지닌 비정형전시공간으로 계속해서 출현하여 다원적 사회에서 보여주는 개별성, 특수성의 특징들이 전시공간형태 뿐 아니라 전시공간과 작품의 관계에서도 전시공간의 새로운 역할은 일상적인 현상으로 나타나 관람객에게 인지될 것이다.

본 연구는 유럽지역의 미술관에서 전시공간 한 부분만이 국한되어 포괄적인 미술관 전시공간을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한계

를 제시할 수 있으나, 유형 분류에 의해 전시공간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각 유형별 특성과 각 유형의 인지 체계를 분석할 수 있었고, 그 결과는 향후 전개될 전시공간 계획의 기초자료로서 의미를 제시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김홍기, 건축조형디자인론, 기문당, 서울, 2001
2. 서상우, 뮤지엄 건축, 도시속의 박물관과 미술관, 살림, 서울, 2005
3. 윤난지 엮음, 모더니즘 이후 미술의 담론-전시의 담론, 눈빛, 2002
4. 이은화, 21세기 유럽 현대미술관 기행, 랜덤하우스중앙, 서울, 2005
5. Emma Barker, 이지운 역, 전시의 연금술 미술관 디스플레이 (Contemporary Cultures of Display), 아트북스, 2004
6. Finn, David, 정준모 역, How to visit a museum, 미술관 관람의 길잡이, 시공사, 서울, 1993
7. Lampugnani, V.M, Sachs, A, 세계의 미술관, 한길사, 서울, 2005
8. Serota, N, 하계훈 역, 큐레이터의 딜레마, 조형교육, 2000
9. Raul A. Barreneche, New Mueseums, PHAIDON, 2005
10. S. and Th. Greub, Museums in the 21st Century, PRESTEL, 2006
11. 김혜인, 1980년대 이후 현대미술전시의 해체주의적 특성에 관한 연구 동덕여대대학원, 석론, 2004.
12. 문정목, 미술관 전시공간 구조의 시대적 의미 변화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대학원, 박론, 2004.
13. 박무호, 박물관 전시공간구조와 관람객 움직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박론, 2006.
14. 박효미, 현대건축 공간의 탈정형적 공간구성 표현에 관한 연구,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석론, 2006.
15. 장훈익, 현대건축에 있어서 탈정형적 공간구성의 다의적 표현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대학원, 박론, 2004.
16. 김명옥, 현대건축과 현대미술의 상호교류와 접점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00.
17. 김철규·전동훈, 현대건축 공간구성의 비정형적 형태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03, 12.
18. 문정목·임채진, 전시공간의 복잡성에 나타난 사회다원화 현상에 관한 연구, 한국박물관건축학회논문집, 2002.
19. 박정태·김용승, 최근 미술관 구성의 다양성 수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1.
20. 이승엽·최재필, 1980년대 이후 박물관을 통해서 본 수직동선요소의 변용과 공간구축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06.
21. 조은실·유재엽·최윤경, 박물관 관람공간구성의 유형별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00.
22. 최윤경, 미술관 공간구조의 연대기적 유형학,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6.
23. 최윤경·김재연, 박물관 전시공간의 지식전달 체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2.

<접수 : 2007. 12. 31>